

KB STARS

MAGAZINE

시즌 최정예

No.18



〈6라운드 경기일정〉

vs현대(천안) 02.21. 19시
vs삼성(대전) 02.24. 19시
vs항공(구미) 02.28. 19시
vsOK(구미) 03.05. 14시
vs한전(구미) 03.10. 19시
vs우리(서울) 03.12. 14시



16-17시즌 비하인드컷
〈A컷같은 B컷, 내 선수들♡〉

이수황선수 인터뷰
〈이수황 날아올라라~!〉

8기 챌린저 인터뷰
〈대학생 마케터, A to Z〉



구미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2016-2017 KB스타즈 배구단 챌린저 8기 인터뷰 [대학생마케터? 스포츠마케팅? A to Z]

시즌을 마무리하는 매거진을 발행하며, 한 시즌동안 고생한 챌린저를 소개하는 면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팬과 선수, 그리고 구단 사이 최전방에서 활동한 챌린저들이 직접 들려주는 스포츠마케팅의 여러 모습, 함께 보실까요?

Q. 당신은 누구십니까~? 챌린저 내에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

안녕하세요, KB스타즈 챌린저 박서진입니다.
챌린저 중에 홍일점인데다 나이가 가장 많아 큰누나 역할을 했습니다. SNS에 올라갈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은메달인터뷰, 경기장 소개 등 주로 화면에 보이는 일을 담당하며 얼굴마담이 되어버렸습니다 ^^;

백

안녕하세요, KB스타즈 챌린저 백지훈입니다.
저는 실제 대학교 동아리 배구를 하며 얻은 지식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리뷰, 은메달인터뷰와 V-키즈 강사, 현장 행사 진행 도움 등 화면 밖에서 다양하게 활동했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KB스타즈 챌린저 중 막내, 김태완입니다.
KB의 오래된 팬임을 십분 활용해 콘텐츠에 덕심(?)을 녹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영상 촬영 전담과 매거진 제작, 카드뉴스 등을 만들며, 팬들의 입꼬리가 올라갈 만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Q. 한 시즌을 겪으며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박

팬의 입장에서만 배구를 즐겼는데 챌린저를 하며 경기 기사를 쓰고 인터뷰하는 등의 경험이 신기하고 뜻깊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홈 경기에 참석이 많이 힘들었는데 밥을 잘 챙겨주시고 시즌 내내 최전방에서 직관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백

배구를 좋아하는 저로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줄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던 제가 기사를 쓰고 매거진을 제작하러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어느새 늘어있는 실력 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

관중석에서 소리만 지르다가 프런트의 입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색달랐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생산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결코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경기에 따라다니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선수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전공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은 무척 뜻깊었습니다.

Q. 다음 시즌 챌린저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박

배구를 좋아한다면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힘든 일이라도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일하는 동안 즐거웠고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

처음 해보는 어려운 일을 하다보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다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시즌이 끝나면 으리으리한 식사들이 눈에 계속 아른거릴 것 같아요 ㅠㅠ

김

영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구기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저같은 분들에게 정말 둘도 없는 덕업일치(?)의 기회입니다. 관련 직종 종사자들과도 만나며 제 실력도 키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구요. 정말 팬심으로,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수황선수 인터뷰 - 수련선수 스토리

[이수황 날아올라라~! 승리의 스파이크~!]

요즘 수련선수로 시작해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한 선수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KB에도 '수련선수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센터 이수황 선수인데요, 이수황 선수의 스토리를 챌린저가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 #1. 수련선수로 들어온 프로의 높은 문턱 〉

Q 이수황선수도 수련선수로 팀에 입단했습니다. 처음에 팀에 드래프팅될 때, 다른 1순위나 2순위 선수들에 비해 위축되진 않았나요?

A 처음엔 실망도 크고, 열심히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선배들이 연락오셔서 가서 잘 하고, 잘 버티면 된다고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훈련해 임했었습니다.

Q 대학과 프로는 다른 세계라고 하더군요. 훈련도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수황 선수는 버티기 힘들진 않았나요?

A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수련선수로 들어오다 보니 운동도 많이 안 시켜주고, 바닥 닦는 일도 많이 하고, 훈련에 참가를 많이 못 했었는데 '그래도 기회가 한 번쯤 오겠지' 하고 야간에도 운동했죠. 또 형들 쉴 때도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온 좋게 기회가 와서 한두번씩 나간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 #2. 정규선수 등록, 비상의 시작 〉

Q 정규선수로 처음 등록됐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A 처음에는 등록했다는 걸 몰랐어요. 원래 수련선수는 정규선수보다 연봉이 적은데, 어느 날 월급이 평소보다 올라 있더라고요. 그 때 코치님이 이제 정식 선수가 됐으니깐 열심히 해보라고 하셔서 그 때를 계기로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거 같아요.

Q 그리고 첫 리그 게임에서 코트를 밟았던 기억, 나시나요?

A 당연히죠. 그 때(2013년 1월 19일), 아산 러시안캐시와의 경기였는데, 긴장도 엄청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났죠. 엄청 떨렸는데, 첫 서브를 딱 넣었는데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운이 되게 좋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수황 선수의 첫 출전은 2012년 12월 29일, LG손보vs현대캐피탈 경기였지만, 처음 활약한 경기(서브 1득점 포함 3득점)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

"개인적인 목표는 딱히 세워본 적 없고, 팀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 한다고 팀이 우승하는게 아니라서.. 그냥 블로킹 하나라도 더 잡고 싶습니다."

〈 #3. 어느덧 중참, 풀타임 주전! 〉

Q 두번째 풀타임 시즌인데, 서브도 그렇고, 공격력과 블로킹도 그렇고! 어느덧 팀 내에서 입지를 꽤 다진 것 같아요.

A (겸손) 작년도 풀타임이었지만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고, 올해도 잘 하는거 같진 않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격) 태키가 워낙 잘 올려주니까, 편하게 때리죠. 받는 것도 잘 받아주고 올리는것도 잘 올려주니까 그냥 받아먹는(?)것 같아요. 코치님이 센터 출신이니까 가르쳐 주시는대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서브) 자신감이 있다가보다는 그냥 목적타로 아무 생각 없이 넣으려고 하는데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제 서브때 워낙 플레이를 잘 해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ㅋㅋㅋ

Q 대학에 있다가 프로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A 제가 대학 때 시합을 많이 뛰는 편이 아니었는데 팀(당시 LG)에 딱 들어오니까 (이)경수형도 있고 TV에서 보던 선수들, 그러니까 대선배님들이 많아서 주눅들고 무섭기도 했었죠. 근데 처음뿐이었고, 형들이 잘 하라고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그게 결국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SNS에서 보면 황택의, 김은우 선수 등과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 후배들을 잘 챙겨주려고 하는 편인가요?

A 저는 후배들이랑 같이 잘 놀고 싶어요. 저도 정신연령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ㅋㅋㅋ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ㅋㅋㅋ



"저희 성적이 좋지도 않은데 항상 응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이 아닌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이수황 선수! 앞으로도 미소천사 이수황 선수의 끝없는 비상 기대하겠습니다! ^^

16-17 V리그 비하인드 컷

[A컷같은 B컷! 우리 선수들~♡]

①



한 발 차이로 디그를 실패하고 절망감에 자책 중인 우리 황태의 선수!
이렇게 자책해놓곤 현대전 승리의 주역이 되었어요! 울지 마요 ㅠㅜㅠ

②



제대 후 팀에 돌아오자마자 서브 득점에 성공한 이효동 선수!
복학생치고 너무 훈훈한거 아닙니까~! 빛이 나요 빛이 나 +3+

③



팬들이 만드는 응원 타임~ 응원석 팬분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주시면
위 사진과 같은 장관이 나온답니다ㅎㅎ 선수들도 흠칫하는데, 예쁘죠?!